

NASA 달탐사 로켓 발사대로 옮겨져

- 문병도 기자
- 승인 2022.03.19 00:15
- 기사공유하기
- 프린트
- 글씨키우기



SLS 로켓. 발사 땐 3991 톤의 추진력으로 오리온 캡슐을 달까지 보낼수 있다. (사진제공=NASA)

[뉴스웍스=문병도 기자] 지난 17 일(현지시간)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높이 98 미터(322 피트), 무게 2608 톤(575 만 파운드)에 달하는 거대한 로켓이 39B 발사대로 서서히 옮겨졌다.

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의 달탐사 프로그램인 '아르테미스 I'에 참가하는 오리온 승무원 캡슐이 탑재된 '우주발사시스템'(SLS) 로켓이다.

SLS 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이다. 발사 땀 3991 톤(880 만 파운드)의 추진력으로 오리온 캡슐을 달까지 보낼수 있다. 50 여 년 전 아폴로 우주인들을 달에 실어 날랐던 전설적인 로켓 새턴 5 호보다 더 강력하다. 새턴 5 호는 3946 톤(750 만 파운드)의 추진력을 발생킨바 있다.

SLS 는 4 개의 개량된 우주왕복선 메인 엔진과 2 개의 확장된 고체 연료 부스터를 장착하고 있다. NASA 는 "SLS 가 한 번의 비행으로 30 톤의 적재물을 달까지 운반할 수 있다"고 말했다.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 는 SLS 보다 더 강력한 7711 톤(1700 만 파운드)의 추진력을 갖춘 재사용 가능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.

로켓은 크롤러에 올려져 조림동에서 발사대까지 총 4 마일을 11 시간 동안 이동했다. 크롤러는 차바퀴의 둘레에 강판으로 만든 벨트를 걸어 놓은 장치를 말한다. 1960 년대에 만들어진 두 개의 크롤러는 8164 톤(1800 만 파운드) 무게를 들어 이동할 수 있다.

'아르테미스 I'은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'아르테미스 프로그램'의 첫 미션이다. SLS 로켓은 처녀 비행을 위한 리허설 카운트다운을 오는 4 월 3 일 시작할 예정이다. 오는 5 월 7 일 우주비행사 없이 발사돼 달 궤도를 돌고 귀환할 예정이다. 첫번째 발사에서는 오리온 승무원 캡슐에 스누피 인형 1 개와 3 개의 계기 마네킹이 실린다. 성공적으로 비행하면 2024 년 유인 아르테미스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.

빌 넬슨 NASA 관리자는 "괴물 로켓이 발사될 때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을 하늘로 실어 나르게 될 것"이라며 "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인류의 거대한 도약과 미래의 화성 임무에 대한 길을 열어줄 것"이라고 말했다.



SLS 로켓이 클로러에 실려 발사대로 옮겨지고 있다. (사진제공=NASA)